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식물이미지를 통한 삶의 모습과
생명에 대한 사유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이혜진

식물이미지를 통한 삶의 모습과
생명에 대한 사유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용 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이혜진

인 준 서

이혜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본인의 작품 전개과정에서 제작된 작품들 중 2014년 4월 ‘식물의 사유전(思惟展)’에 전시되었던 작품을 중심으로, 내용 및 조형적 전개과정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수록한 것이다.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자연과 공존하며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식물은 생사(生死)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과 함께 끊임없이 움직이며 생명을 일구어 왔다.

본인은 본 연구를 통해 예술창조의 무한한 소재를 제공하는 자연물 가운데 일상 속 식물을 소재로 삼아 본인 작품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단순한 회화적 소재로써 식물의 이미지를 넘어 우리 삶의 내재적 심연을 움직일 수 없을까하는 상고함을 시작으로, 식물의 생명성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인간은 식물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편안한 기분과 심미적 진동을 느끼며, 치유, 감성을 회복하여 사유하게 된다. 또한 식물은 종(種)마다 다른 색, 구조, 형태 등 여러 가지 조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예술적 모티브를 얻기에 무궁무진한 대상이다. 꽃이 지며 생성해내는 결과물인 과일과 가지, 잎 등은 본인에게 있어 창작의 매개체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식물의 오묘한 색감과 잎이 변화된 모습은 본인에게 생명에 대한 미적 감성을 일으키며 작품에서 표현하는 데에 모티브가 된다. 만발하였던 꽃이 시들고 싱그러운 풀이 마르는 식물의 유한성은 자연의 섭리이자,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도 느껴지며 생명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시각적으로 다가오는 조형미 이외에 심리적인 부분까지 영

향을 미치는 식물을 통해 삶에 모습과 생명에 대한 사유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작품전개 과정에서는 본인의 작업의 근간이 된 동양의 기명절지화(器皿折枝畫)와 서양의 바니타스(Vanitas) 정물화에서 나타나는 식물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본인의 작품에서 사유적 이미지 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정물화 형식의 표현성을 빌어 식물이미지를 우리의 삶의 모습과 투영하여 조형화하였다. 즉,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자연의 일부로써 식물이미지를 의미화 하여 생명에 대한 사유성과 삶의 모습을 순화시켜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기존의 미술작품인 카라바조(Caravaggio)의 정물의 부분을 차용하고 확대 재구성하여 동시대적 감성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식물의 구조나 형태, 색감 등을 점, 선, 면의 반복으로 적용시켜 드로잉(Drawing)화 시켰다. 반복적 패턴을 통한 조형적 묘사는 장식적 기능을 확대시키려는 의도이며, 마치 유기체로써의 무한 증식하는 식물이미지의 느낌으로 드러나 식물의 생명적 생동감, 리듬감의 효과를 줄 수 있었다. 또한 미세하게 번지고 스며드는 농담의 담채적 표현을 통해 드로잉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 과정을 살펴, 식물의 사유적인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이 연구를 통해 본인 작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전개될 작업의 방향을 찾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내용적 전개	3
1) 사유의 미술	3
2) 색(色)의 사유성	6
3) 식물이미지의 심미성과 생명성	8
2. 조형적 전개	11
1) 크로핑(Cropping)과 확대	11
2) 점, 선, 면 - 드로잉(Drawing)	15
3) 담채적(淡彩的) 표현	20
3. 작품 분석	22
III. 결론	38

참고 도판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1] Image 1. 26.5x36.0cm, mixed media, 2012
- [작품2] Image 2. 39.4x54.5cm, mixed media, 2012
- [작품3] Image 3. 24.2x33.4cm, mixed media, 2012
- [작품4] Image 4. 24.2x33.4cm, mixed media, 2012
- [작품5] Image 5. 19.0x13.0cm, mixed media, 2012
- [작품6] Image 6. 130.5x71.0cm, mixed media, 2012
- [작품7] Image 7. 100.0x80.3cm, mixed media, 2013
- [작품8] Image 8. 33.4x53.0cm, mixed media, 2013
- [작품9] Image 9. 61.0x50.5cm, mixed media, 2013
- [작품10] Image 10. 53.0x45.5cm, mixed media, 2013
- [작품11] Image 11. 43.0x130.0cm, mixed media, 2013
- [작품12] Image 12. 19.0x33.4cm, mixed media, 2014

도판 목차

- [도판1] 비단욱(費丹旭), <기명절지도>, 105x43cm, coloring on silk, 1839
- [도판2] 얀 브뤼헬(Jan Brueghel the elder), <보석, 동전, 조개껍질과 함께 있는 화병>, 65x45cm, oil on copper, 1606
- [도판3] <The Giver-기억전달자> 스틸 컷
- [도판4] 매슬로우(Avraham H. Maslow)의 욕구 7단계
- [도판5] 카라바조(Caravaggio), <과일바구니>, 46x64.5cm, oil on canvas, 1596
- [도판6] 카라바조(Caravaggio), <과일 바구니를 든 소년>, 70x67cm, oil on canvas, 1593~1594
- [도판7] 카라바조(Caravaggio), <바쿠스>, 95x85cm, oil on canvas, 1596~1597
- [도판8] 도판 6의 부분 컷
- [도판9] 도판 8의 부분 컷
- [도판10]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흰 독말풀>, 121.9x101.6cm, oil on canvas, 1932
- [도판11]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크리스탈 그릇이 있는 정물>, 52x42cm, magna on canvas, 1973
- [도판12] 식물의 이미지
- [도판13] 본인 작품의 부분 컷
- [도판14] 조르주 쇠라(Georges Pierre Seurat),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207x308cm, oil on canvas, 1884~1886
- [도판15] 본인 작품의 부분 컷
- [도판16] 본인 작품의 부분 컷

I. 서 론

미술¹⁾은 작가의 삶이나 시간의 축적, 사물에 관한 직관, 사고방식 등의 내면의 정서를 통해 인간의 삶과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미적 가치를 나타내는 창조행위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언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보다 복잡 미묘한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감성과 마주하여 볼 수 있는 사유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미술이 인간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나 생활방식을 반영하여 우리 실생활의 일부로써 미적 의식을 발전시킨다. 또한 개인적 관점에서 작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가치관과 감성을 드러내는 소통수단으로서 삶의 본질을 인식하고 사유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즉, 미술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며, 사회라는 큰 범위 안에서 타인과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의 삶이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내면의 감정을 공유하고 해소하기 위한 장(場)이다.²⁾

본인에게 있어 미술은 삶 속에서 얻게 되는 삶의 의미를 바탕으로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감성을 매개로 소통으로써 사유성을 우선시 한다. 이러한 본인의 작가관에 주목하여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자연의 일부로서 식물이미지를 의미화 하여 생명에 대한 사유성과 삶의 모습을 순화시켜

1) 미술이란 작가의 생활경험에서 얻어지는 특정한 감정과 심상(心象)을 평면 또는 입체적으로 구형(舊形),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의 직업은 형태·면·선·색·기호 등 갖가지 요소를 하나의 통일체로 종합하여 자기의 심정을 전달하고 또 미적 쾌감을 주어야 한다. [네이버지식백과] 미술(美術)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2) 이승건, 『미술특강』, 미술문화, 2007, p8~p28.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론 1장의 내용적 전개에서는 미술의 역할로써 사유성에 대해 서술하고, 동양의 기명절지화(器皿折枝圖)와 서양의 바니타스(Vanitas)에서 드러나는 상징적 의미와 사유적 이미지를 연구하여 본인 작품에서의 사유적 표현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색의 심리적 표현으로 감성적 관계성을 영화 <더 기버: 기억전달자>를 통해 서술하여 본인이 추구하는 생명적 식물이미지의 표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한 식물이미지를 통해 느껴지는 심미성과 상징성을 통해 생명의 아름다움을 고찰해본다.

본론 2장에서는 본인 작품의 조형적 관점과 전개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기존의 미술작품인 카라바조(Caravaggio)의 정물의 부분을 차용하고 확대 재구성하였다. 원본이미지에서 벗어나 강조와 집중, 연상적 표현과 식물의 생성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잎이나 줄기, 과일 등의 구조와 형태를 반복적인 점, 선, 면을 구사하여 장식적 기능과 드로잉적 표현성을 증대하였다. 또한 불규칙한 반복을 통한 시각적 환영과 리듬감의 강조로 생명성의 표현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식물 고유의 맑고 풋풋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위해 물성을 최대한 절제하여 번지고 스며드는 농담의 담채적 표현으로 드로잉적 요소를 드러내게 된 본인 작품의 흐름을 살펴본다.

본론 3장에서는 본론에서 연구한 내용과 조형적 전개를 바탕으로 작품 분석이 이루어진다. 본인은 드로잉적 식물이미지의 표현형식을 통해 식물의 생명성과 조형성을 내적 정중동(靜中動)의 이미지로써 미적 감성을 연구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내용적 전개

1) 사유의 미술

사유는 개념, 구성, 판단, 추리를 행하는 인간의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본질의 파악에 관한 능력이다.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사유는 순간적이고 개별적인 지각의 이해를 넘어서서 각각의 지각 및 표상을 일정한 규칙 하에서 현실의 경험으로 통합하는 능력을 가리키며, 사유와 감성의 인식형식들의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보임으로써 인식에서는 감성 없이는 어떠한 대상도 주어질 수 없으며 어떠한 것도 파악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³⁾

미술은 삶 속에서의 느낌이나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감성을 드러내는 소통의 수단으로써 삶의 본질을 인식하고 사유하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즉, 미술은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며, 사회라는 큰 범위 안에서 타인과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의 삶이나 가치관 등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감정을 공유하고 해소하기 위한 장(場)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관계성에 주목하여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친숙한 식물 이미지를 의미화, 조형화 하여 삶의 모습과 본질에 대한 사유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품 방향의 설정은 기명절지화(器皿折枝畫圖)나 바니타스(Vanitas)의 정물화에서 조형적 아름다움을 넘어 쉽게 인지될 수 있는 친숙한 사물과 식물이미지로 사유의 장을 형성함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도판 1, 2] 이러한 정물화의 표현성을 빌어 식물이미지를 동시대의 감성으로 조형

3) [네이버지식백과] 사유 (思惟, Denken) 칸트사전, 도서출판 b, 2009. 10. 1.

화하여 사유적 표현성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유성을 잘 드러낸 정물화 형식의 작품은 중국의 기명절지화⁴⁾와 서양의 바니타스⁵⁾이다. 중국 원대에 드러나기 시작하여 청대에 성행하여 조선으로 유입된 기명절지화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성행하였던 바니타스 정물화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정물을 통해 상징적 의미를 보여준다.

동양의 기명절지화는 대상을 눈으로 관찰하여 그린 것이 아니라 의미나 상징을 기억 속의 상념으로 그렸다. 따라서 물체가 사실과 닮았거나 닮지 않은 것은 그리 중히 여기지 않았으며, 인생의 덧없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며 주로 복(福)을 구하는 의미로 표현한다. 기명절지화에서 드러나는 사물들은 하나의 상징체로서 물아 혼연 일체(物我渾然一體)가 되는 자연

4) 동양 정물화의 시초는 중국의 원대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청대에 독립된 화목으로 본격적으로 크게 성행하였으며, 조선으로 유입되어 초기부터 그려지다 말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성행하였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강세황이 문인화풍의 간결한 필치로 다룬바 있으나 전형적인 기명절지도의 대두는 19세기 후반 장승업을 통해서였다. 꽃과 풀을 그리면 화훼화(花卉畵), 꺾은 나뭇가지를 그리면 절지화(折枝畵), 그릇을 그리면 기명화(器皿畵) 등으로 소재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붙여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 두산백과, 2010.

5) 17세기 신흥경제대국으로 떠오른 네덜란드에서는 인물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던 과거와 달리 본격적으로 독립된 장르로써 정물화가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네덜란드 꽃 정물화에서는 들판에서 자생하던 미적인 존재의 자연물이 아니라 인위적 재배된 경제활동의 대가로 얻은 상품으로써 대개 다양한 꽃이 계절과 상관없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꽃은 계절에 따라 한정된 시간, 찰나적인 아름다움의 희소성 때문에 매우 값비싼 사치품이었으며 그 아름다움을 소유, 기록해둘 매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물화가 성행하게 된 좋은 동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반성의 움직임도 있었다. 화려한 꽃에도 아름다움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오는 것처럼 인간의 삶도 역시 죽음이 찾아와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시들어가는 잎과 과일은 결국 썩게 되어 있어, 헛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진리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바니타스(Vanitas)의 의미였다. 최정은, 『보이지 않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정물화』, 한길아트, 2000, p13~p145.

합일의 동양 정신이 담겨 있는 것으로서, 난초는 고고함과 그윽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트리는 특성 때문에 충성심과 절개, 그 아름다움과 향기를 찬미하여 귀히 여기는 풍습으로 그려졌다. 또한 복숭아는 장수, 화병은 평안, 석류와 포도는 자손의 번성, 모란은 부귀 등 길상적(吉祥的)⁶⁾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파초는 양파처럼 아무리 벗겨도 끝내 아무것도 남지 않아 불완전한 인간에 비유되어 덧없는 존재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서양의 바니타스는 대개 사실적이며 정적인 이미지로 표현되는 특징이 있으며 인생의 무상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바니타스가 독립적인 회화 장르로 등장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였다. 네덜란드의 초기 정물화는 해골·촛불·모래시계 등을 그려 인간의 삶을 비유하거나 4계절의 꽃과 열매들을 한자리에 모아 자연의 순환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해골과 뼈, 엮어진 유리잔, 거울, 책, 연기가 피어오르는 촛불심지, 꺾인 꽃 등의 정물은 모두 세상의 삶의 유한성과 부질없음을 나타내는 상징체로서 드러나며, 때로는 부활과 영생을 상징하는 옥수수 열매, 담쟁이, 월계수 가지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또한 갈색 톤의 배경과 사물의 빛깔은 숙연한 마음으로 삶의 허무를 느끼게 한다.

기명절지화와 바니타스에서는 인간에 내재된 정신, 본질적인 욕구로서의 인간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의 작품 역시 바니타스와 기명절지화에서 표현되어지는 친숙한 식물 이미지를 소재로 삼으며, 삶의 모습과 생명에 대한 사유성을 식물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며 조형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6) 길상이란 아름답고 착한 징조라는 뜻으로 좋은 일이 있을 징조이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동물이나 식물, 해와 달, 별 등에 길상의 의미를 두어 의복이나 장신구,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그림으로 도안화하여 상징적인 의미로 즐겨 사용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길상(吉祥) 문화원형 용어사전. 문화콘텐츠진흥원, 2012.

(2) 색(色)의 사유성

폴 세잔(Paul Cezanne, 1839~1906)은 자신의 미학적 목표가 “감각을 실현하는 것” 이라고 하였으며, 인간적인 사색만이 근본적인 지각에 도달할 수 있으며, 자연은 인간정신의 사유를 통해서만 그 자의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⁷⁾ 세잔은 감각을 빛과 색 자체의 자유로운 유희 속에서 대상의 이미지로 재현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각하는 자에게 경험되어진 시각에서 색면의 구성으로 조화롭게 표현함에 따라 감성의 자극을 유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색은 사물을 인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이 외부에서 얻는 모든 정보의 80% 이상을 ‘눈’ 이라는 시각을 통하여 받아들여 감지한다고 한다. 즉, 인간의 눈은 먼저 색을 인지하고, 뇌에서 색을 느끼고 해석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는 색이 여러 가지 의미를 느끼게 하는 심리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때에 우리의 경험과 인상, 감정들이 기억에 의해 지각된 감각으로 뇌에 자극이 가해진 작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초록색은 생명과 에너지, 성장, 재생 등을, 흰색은 빛, 순수, 해탈, 평화, 행복 등을 뜻하고, 검정은 혼란, 엄격함, 금욕, 무(無), 죽음, 무의식 등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⁸⁾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역사, 종교, 관습 및 미신에 의해 확립되어 온 것들이며, 이 상징적 의미에는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전개되었던 인간의 감정과 관념들이 표현되어 있다.⁹⁾ 색은 그 시대와 문화마다 가진 상징적 의미는 달라질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일상을 장식한

7) 세잔의 작품은 자연에서 체험된 시각에서 대상을 색면의 구성으로만 조화롭게 표현함에 따라 보는 이로 하여금 감성의 자극을 유도한다. 전영백, 「세잔의 사과 - 현대사상가들의 세잔읽기」, 한길아트, 2008, p 199, p326.

8) 김용숙, 「컬러심리 커뮤니케이션」, 일진사, 2008, p14~p16, p99~p100, p123~p127.

9) 파버 비렌, 「색채심리」, 김화중 역, 동국출판사, 2003, p221.

다. 이처럼 색이 가진 상징성을 통해 감성을 전달할 수도 있다.

영화 <The Giver - 기억전달자>는 흑백과 색채 화면의 대조적인 표현성을 통해 색채의 감성적 관계성을 잘 보여준다. 이 영화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전쟁, 권력, 싸움 등으로 번져 서로에게 피해를 주며 평온한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유토피아적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류가 축적한 경험과 감정, 언어 등의 기억을 모두 통제한다는 모순적 상황을 연출한다. 주인공 조너스는 선대 기억보유자로부터 고통, 용기, 사랑 등의 감정과 역사 속에 묻힌 진실들을 이어받게 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등에 관하여 사유함에 따라 진정한 삶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조너스가 사유하고 지각하게 되는 전후의 과정은 흑백과 색채영상의 대비로 표현된다. 통제 당한 삶의 모습은 흑백영상으로, 사유하는 삶의 이미지는 색채 영상으로 드러내면서 시각적으로 집중적인 대조, 양극을 이루어 강한 인상을 남기며, 심리적인 사유를 갖게 한다.



[도판3] <The Giver - 기억전달자> 스틸 컷.

색은 각각의 색마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색의 대비를 통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미묘한 감성을 표출할 수 있는 조형언어인 것이다. 색채는 시각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인간의 공통언어이며, 인간이 감

지하고 인식하는 바를 시각적 언어로서 타인에게 전달하는 주체적인 요소로서 역할을 하며,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순화시켜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색을 통한 심미적인 감수(感受)¹⁰⁾를 가능케 하는 것은 색채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상징성이며, 사유성을 갖는다.

본인에게 있어, 사계절마다 변화하는 식물의 색감과 잎이 변화된 모습은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경험과 더불어 생명에 대한 미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며, 작품을 표현하는 데에 모티브가 된다. 만발하였던 꽃이 시들고 싱그러운 풀이 마르는 식물의 유한성은 생명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 본인은 이러한 생명에 대한 감성적 표현을 단색면과 식물의 형상이 드러나는 공간의 색, 여백으로 표현하며, 식물의 모습을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색으로 채색하였다. 주로 초록 잎이나 붉은 꽃잎 등을 담채로 표현하여 투명하고 맑은 느낌의 식물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3) 식물이미지의 심미성과 생명성

미술사에 있어서 식물이미지를 주제로 하는 작품은 수없이 많이 제작되어 왔다. 서양에서는 17-18세기 화가 장 블랭(Jean Belin, 1653~1715), 얀 판하위섬(Jan Van Huysum, 1682-1749)과 같은 궁정화가들이 군주의 업적을 칭송하고 왕국의 번영과 영광을 표현하기 위하여 식물을 주제로 사용하였으며,¹¹⁾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인 마네(Edouard Manet, 1832~1883)는 <작은 받침 위에 놓인 모란 꽃병>(1864)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의 무상함을 표현하였다.¹²⁾ 또한 현대미술에

10) 감각신경에 의하여 밖으로부터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자극이나 인상을 받는 것. [네이버 한자사전] 감수(感受) 오픈마인드 자료제공,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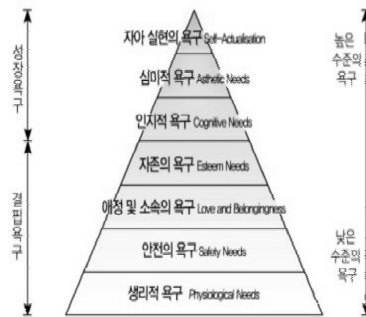
11) 뱅상 포마레드, <루브르 - 루브르 회화의 모든 것> 오윤성 외 2명 역, 시그마 북스, 2011, p.404~405.

와서, 오키프는 꽃잎과 꽃술 등 식물 이미지의 실질적 형상에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부여하여 자연의 순환하는 에너지를 묘사하고 이 에너지를 통해 삶과 죽음의 순환 고리를 생각하였으며, 식물이미지 그 자체로서 자연세계를 표현하고 이를 통해 생명력에 대한 사색을 시도하였다.¹³⁾

이와 같이 식물이미지는 많은 작가들이 선호하여 온 표현 소재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매개로써 식물이미지를 차용하였다. 본인의 작품 역시 식물이미지를 통하여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대중과 소통하려 시도하고 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Abraham H. Maslow, 1908~1970)는 인간의 하위욕구가 채워지면 점차 높은 수준으로 상위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고 하였다.**[도판4] 심미적 욕구**¹⁴⁾는 본질적으로 생명을 통한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자연, 특별히 식물을 통하여 심미적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 원인은 식물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7단계)



[도판4] 매슬로우의 욕구 7단계.

미적 대상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식물을 통해 행복하고 편안한 기분과 함께, 심미적 진동을 느끼며 치유의 효과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¹⁵⁾

12) Bateau, W. Manet by himself. Chartwell books, Inc, 2011, p.118.

13) 박지숙, <1980년대 회화에서 유기적 이미지의 형상화에 관한 연구>(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10), p103.

14) 심미적 욕구는 인간이 자연과 예술에서 질서, 조화, 미적 감각을 추구하는 자아실현 욕구의 전단계로, 인간과 자연은 불가분한 관계를 지님. 인간의 본능적 욕구는 순차적으로 7단계 피라미드의 형태로 나타남. [네이버 지식백과] 욕구단계이론(hierarchy of needs theory) 심리학용어사전, 2014. 4.

15) 인간과 식물과의 감응(感應). 영적인 충만함에 젖어있는 식물의 심미적 진동을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낌.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광합성), 영양분(포도당), 산소 등에서 인간은 의존함. 피터 톰킨스, 크리스토퍼 버드, 「식물의 정신세계」, 황금용 외 1명 역, 정신세계사, 1993, p6.

식물은 단순히 살아 숨 쉴 뿐만 아니라 상호교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자 식물에서 느껴지는 조형적인 아름다움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에서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이다. 정적이지만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 독자적 운동 능력을 갖고 있으며,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색깔과 질감 등의 변화는 잎이나 가지, 열매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식물을 통해 느끼는 아름다운 색깔과 형태의 조형성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해 사유할 수 있다. 유기체적인 식물이미지에서 오는 생동감과 리듬감 등은 끊임없이 자라나는 식물의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로 느껴지기도 하며, 식물을 통해 느껴지는 미적 분위기와 경험, 그리고 계절에 따라 생성되는 시각적 아름다움과 함께 정서적인 안정을 얻게 된다.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은 자연으로부터 생성되는 심리적인 아름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20세기의 생물학자 라울 프랑세(Raoul France', 1874~1943)는 식물도 자신의 몸을 고도로 진화된 동물이나 인간처럼 자유롭고 쉽게 우아하게 움직이며, 같은 종류의 식물일지라도 인간과의 유대감을 통하여 지각함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동물이나 인간과 같이 감정과 감각이 있다고 하였다.¹⁶⁾

본인은 햇볕을 찾아 뺏어나가는 식물의 섬세한 이동과 돌 틈 사이에서도 자라나는 생명이 경이롭고 아름답게 느껴졌으며, 인간의 몸짓이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식물의 아름다움은 유한성을 가지는데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이러한 과정은 생명에 대한 고찰로 이어졌다.

16) 피터 톰킨스, 크리스토퍼 버드, 「식물의 정신세계」, 황금용, 외1명 역, 정신세계사, 1993, p6~p7.

2. 조형적 전개

1) 크로핑(Cropping)과 확대

본인은 작품의 주제와 형식을 찾으면서 고민하던 중에, 카라바조(Caravaggio, 1573~1610) 작품의 <과일바구니>를 보면서 우연히 정물을 관심 있게 보게 되었다. 카라바조의 정물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정물이 가지는 사유적 의미를 알게 되었고, 카라바조 작품의 식물이미지를 차용하여 본인의 작품에 시도하게 되었다.[도판5],[작품1] 식물을 소재로 한 기존의 작품을 차용(借用)하는 것은 잘 알려진 작품이기에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가 보는 이가 친숙한 이미지로 감상하고자 했던 출발점으로 보면 되겠다.

차용은 빌려온다는 의미로 미술사, 광고, 미디어 등에 이미 등장한 형상을 가지고 새로운 형상과 합성시켜 또 다른 작품을 창조하는 제작방법을 가리킨다. 과거에서 독창성과 창조성을 예술이라 치부했던 사상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금기시되어 왔었지만, 리처드 해밀턴(Richard Hamilton)이 대중 광고들을 콜라주하고 앤디워홀(Andy Warhol)이 브릴로 상자와 캠벨수프깡통의 상품을 작품으로 제작한 팝아트에서의 차용은 창조에 대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이를 통해 차용은 현대사회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게 되었다.¹⁷⁾ 최근 현대미술에서 미술작품에서 차용을 두고 논란이 되어 차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의문점을 갖기도 하지만, 지금의 대중에게는 이미 익숙해진 이미지로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며 친숙한 이미지로 접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근접해있는 광고, 사진, 사물 등의 기존의 그 이미지에서 생각하고 파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기존의 미술작품, 특별히 식물을 소재로 하여 카라바조의 정물 부

17) [네이버지식백과] 차용(appropriation) 세계미술용어 사전, 월간미술, 1999.

분을 차용하여 확대 재구성한다.[도판 5, 6, 7], [작품 1, 2, 3, 4, 5, 6] 즉, 크로핑(cropping)¹⁸⁾과 확대의 작업과정을 통해 식물의 조형성을 세밀히 관찰하고, 잎이나 줄기, 꽃, 열매, 나무 등의 조형요소들을 생생한 색감이나 형태, 구조, 표면의 질감을 극대화하여 드러낸다. 또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확대함에 따라 감상자의 시선에서 유기체적 형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감상적인 공간의 연장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법의 적용은 식물의 조형적인 요소들의 섬세한 묘사와 관찰로 이어지며, 화면에서 대상을 강조, 집중시키는 효과와 제한된 화면에서 벗어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색다른 이미지로 보이기도 한다.[도판 6, 8, 9]



[도판6] 카라바조, <과일 바구니를 든 젊은이>



[도판8] 도판 6의 부분 컷.



[도판9] 도판 8의 부분 컷.

- 18) 1. 사진이나 그림을 편집할 때 원하는 크기에 맞도록 그 사이즈를 조절하는 것. 이렇게 크롭을 할 때 자른 부분에 선을 긋거나 표시를 한 것을 ‘크롭 마크(crop mark)’라고 한다. 그리고 잘려나가는 부분은 ‘크롭트(cropped)’라고 한다.
2. TV 촬영기로 텔런트나 물체를 촬영할 때 촬영기를 피사체에 가깝게 움직여서 화상의 여백 부분을 조절(trim(ming))하는 것.
3.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 내는 작업. 스캐너로 입력한 사진 등의 화상을 가장자리의 여백이나 원하지 않는 부분을 잘라 내는 작업 등을 말한다.
4. 음화 필름 또는 슬라이드 필름에 잡혀진 이미지의 특정 부분만을 인화하는 것.
- [네이버지식백과] 크롭(crop, cropping) 만화애니메이션사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08.12.30.

식물이미지(Caravaggio의 정물, 기존의 사진작품)를 Cropping→ 식물 부분 이미지를 확대→ 변형된 식물부분이미지를 드로잉하는 과정을 거친다.

[작품 3, 4, 5, 6]을 참고.

이러한 반복 작업과정은 이미지의 모방, 복제, 재현에 그치기보다는 재구성을 거쳐 크기의 변형을 통해 다양한 변화와 방법으로써 기존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시도의 과정이다.

오키프(O'Keeffe)와 리히텐슈타인(Lichtenstein)은 확대와 크로핑 기법을 통해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찾아내려는 관찰 묘사와 일상적인 현실을 반영한 작품으로써 다양한 해석과 상상력을 유도하여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색다른 이미지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1887~1986)는 사물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추상적인 수채화에서부터 꽃그림에 이르기까지 식물이미지를 확대시킨 작품을 주로 그렸다. 많은 것을 담으려 하기 보다는 자신이 말하고자하는 바에 집중하여 대상에 다가가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연의 모방이 아닌 사물의 본질과 내적 감정을 탐구하고 사소한 일상의 사물에도 의미를 부여하였다. 반복된 패턴과 형태의 요소들을 변형하고 조합하여 조화롭고 명상적인 공간 이미지로 표현하였다.¹⁹⁾ [도판10]

또한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1923~1997)은 기존의 연재

19) 작품 구성방식과 편집방법은 사물을 보는 색, 조화, 비례, 공간 등의 구성요소를 균형 있게 배치할 것을 강조한 다우의 이론과 결합한 사진술로, 그가 사실주의에 기초하면서도 카메라 렌즈와 암실작업에서 빌려온 단축법과 불필요한 부분을 쳐내는 방법에 의해 추상화된 그림 양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다. 다우의 이론- 동양미술과 아르누보의 장식적 원리에 영감을 받아 자연의 모방이 아닌 추상적, 2차원적 양식에 도달,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단순하고 조화로운 디자인 형태를 도입할 것을 주장. 헌터 드로호조스카펠프, 「조지아 오키프 그리고 스티글리츠」, 이화경 역, 민음사, 2004, p95~p99.

만화나 일상품, 광고 이미지, 만화의 장면을 캔버스로 확대하여 친숙하면서도 독자적인 스타일의 작품을 제작한다. 확대하여 옮긴 이미지 위에 뚜렷한 선과 색채, 망점(dot)²⁰⁾을 찍어 평면적으로 표현하여 강렬하면서도 단순하고 마치 하나의 인쇄물처럼 보이게 한다.[도판11]

‘나는 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구성하기 위해 드로잉을 한다. 나는 가능한 최소한의 변형만을 시도할 뿐이다. 대상이 만화, 사진 혹은 그 무엇이든, 나는 우선 반사식 영사기에 맞는 작은 크기의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캔버스에 영사하고 연필로 그린 다음 마음에 들 때까지 가지고 논다.’

“허공을 반사하는 공들여 구성된 그림이다. 그것들은 누군가 거울이라고 말할 때 비로소 거울처럼 보인다. 이 점을 인지하면 사실주의적인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관람자는 오히려 사실주의에 입각해 거울을 보려한다. 결국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양식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²¹⁾

로이 리히텐슈타인 작업은 산업적으로 생산된 레디메이드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계 복제(만화), 수작업(드로잉), 다시 기계 복제(투영기), 다시 수작업(복제와 채색)이란 일련의 과정을 거친 것이었다. 반복을 통한 그의 수작업과 기계 작업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모순적인 특징들은 무수한 변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이미 인쇄된 이미지를 복제했지만 그것을 회화적 요소로 변형시켰으며, 고유한 양식과 주관성의 이름으로 그 이미지를 재구성함으로써 회화적 형식과 통일성이란 가치들을 인식시켜준다. 또한 세계의 사물들과 반드시 유사하지만은 않은 기호를 다루면서 우리의 리얼리즘에 대한 감각을 의문시하고 그것의 인쇄적인 코드, 환영적이고 평면적인 공간으로 두 가지 측면을 보여

20) 기계적인 인쇄로 생긴 벤데이 점(Benday dot).

21) 캐럴라인 랜츠너, 「Roy Lichtenstein」 고성도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2014, p22, p41.

준다. 그의 회화는 걸러진 이미지였고, 그 자체로 모든 것이 기계복제와 전자 시뮬레이션의 과정을 거치는 전후 세계에 대한 하나의 기호였다. 그가 작품을 제작하는 실제의 과정(손으로 만든 것과 레디메이드를 뒤섞는)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현대 세계의 이미지는 대개 매개된 것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보는 방식과 그리는 방식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컴퓨터 스크린이 일상화된 우리 시대에는 지배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모든 이미지는 영사된 상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읽기와 보기 행위는 모두 일종의 스캐닝(Scanning)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시각적이건 비시각적이건 간에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수용하도록 훈련된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양식화 되어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본다는 것이다.²²⁾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본인의 작품을 살펴볼 때, 잉크로 점을 찍거나 선을 긋는 드로잉 작업은 인쇄적 느낌의 이미지로 나타남에 따라 인쇄적 코드를 암시하고 평면성을 다루었다는 부분에서 유사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확대와 크로핑 기법을 통해 식물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찾아내려는 관찰 묘사와 일상적인 현실을 반영한 작품으로써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한 시도이다.

2) 점, 선, 면 - 드로잉(Drawing)

식물의 종(種)마다 각각 다른 색감과 형태, 구조 등의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식물을 주제로 한 회화는 광범위하면서도 작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형성을 가진다.

식물에서의 꽃, 열매, 나무 등의 구조나 형태를 살펴보면 각각의 대상마다 점과 선, 면의 조형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주로 점과 곡선의 형태를

22) 할 포스터, 로잘린드 크라우스, 이브 알랭 브야 외 1명, 「1900년 이후의 미술사」, 배수희, 신정훈 역, 세미콜론, 2007, p483~487.

발견할 수 있는데, 시간의 흐름과 주변 환경으로 인한 성장과 소멸의 생명적 현상은 식물의 잎이나 줄기, 넝쿨 등의 구조에서 구부러지거나 휘어짐 등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통해 더욱더 다양한 형태들로 나타난다. 식물의 형태는 같은 단위의 반복된 모양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형태 안에서 미세한 변화를 가진 반복된 형상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다양한 형태를 지닌 식물들은 매우 정교한 구조의 질서가 있다. 그 정교함은 식물이 자라면서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굽어지는 줄기의 성장 등이 규칙 혹은 불규칙적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이는 잎의 표면, 잎맥에서는 갈라져 뻗어나가는 선이나 평행, 선끼리 교차하는 등의 구조들에서만 아니라 줄기나 가지에서 보이는 굴곡, 나무의 기둥의 표면, 과일의 겉과 속에 들어 있는 씨앗 등 찾아 볼 수 있다.[도판12] - 프랙탈 이론 (Fractal theory).



[도판12] 식물의 이미지

본인은 이러한 식물이 가진 다양한 형태와 구조, 색감 등의 조형성을 반복적인 점, 선, 면의 드로잉으로 묘사한다.

드로잉은 작가의 삶이나 작업 태도, 사물에 관한 직관과 가치관과 무의식적인 심리적 표현수단이 되기도 하면서, 더 나아가 대상의 핵심적인 것 또는 새로운 의미 등을 추출하는 창의적인 지적 활동으로 의미하기도 한다.

본인에게 있어서 드로잉은 식물의 윤곽적인 형태와 표면의 질감, 명암 등을 마음속으로 구상한 형태와 구도를 나타내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한 밑그림이다. 또한 독립적으로 완성된 작품의 역할로 내면의 미적 감성을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점을 찍거나 선을 긋는 드로잉 작업은 잎이나 줄기, 과일 등에서 미세하게 다른 무늬나 형태 등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다. 점을 찍거나 선을 그리는 반복적인 행위는 일정한 간격과 크기로의 표현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작업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행위는 비, 바람 등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견뎌내어 결실을 맺는 식물과 같이 세월의 흔적과 인내의 과정이 반영된 작업방식이다.

바로크시대의 화가 카라바조(Michelangelo da Caravaggio, 1573~1610)는 빛의 효과를 색채로 환원하는 명암법을 활용하여 광원의 설정, 빛과 그늘의 대조적인 설정을 통해 극적인 효과를 연출한다. 카라바조는 빛의 흐름을 꼼꼼히 연구함으로써 사물들의 표면에 비치는 반사광을 정밀하게 하여 빛과 밝음, 그림자와 어둠을 극적으로 충실하게 표현함으로써 인해 더욱더 사실적으로 나타났다.²³⁾ [도판 5, 6, 7]

카라바조는 대상의 관계와 극적인 대비, 입체감 등의 빛의 표현으로 명암법을 드러내지만 본인의 작품에서는 명암을 최소화한다. 본인은 식물이미지를 단순화시키고자 외곽선 안에서 점을 찍거나 곡선을 그려냄에 있어서 생략, 절제를 통해 밝음과 어둠을 표현한다. 명암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는 주로 점과 곡선을 밀도차를 주어 반복적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유기적인 점과 곡선들은 마치 식물이 유기체적으로 무한 증식하는 느낌을 주어 식물의 생명적 생동감, 리듬감의 효과를 준다. 또한 식물의 형태 안에서 주로 점,

23) 김상근, 「이중성의 살인미학 카라바조」, 평단문화사, 2005, p32~p35.

선, 면의 반복적 묘사는 그 변화 안에서도 전체적인 통일감을 준다.[도판13]



신인상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프랑스 화가 조르주 쇠라(Georges Pierre Seurat, 1859~1891)는 빛과 색채의 조화에서 오는 감흥에 우선하여, 색채가 시각에 미치는 작용에 대한 탐구로 순수 원색을 분할하여 조형질서를 다시 구축함에 따라 규칙적인 점으로 찍어서 마치 모자이크처럼 화면을 구축하려 하였다.[도판14] - 점묘법(pointillism). 쇠라는 (외곽선을 무너트리고 모든 형태를 다양한 색깔의 점으로 분할한) 그림이 알아보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에 따라 더 극단적으로 형태를 단순화시켜 복잡한 회화 기법을 보완한다.²⁴⁾

본인의 작품에서 식물이미지 형태 안의 쇠라의 점묘와 유사하게 표현된 불규칙한 점이나 곡선들은 이미지 형태의 외곽선을 두껍게 강조함으로써 정리하여 통일감, 안정감을 유도하였다.

게슈탈트 이론(Gestalt theory)²⁵⁾에 의하면 인간 경험의 궁극적인 요소가 원자적 성분으로 분해될 수 없는 일종의 구조 내지 구성이라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며 개별적인 감각 데이터들은 단지 시각적인 영역에서만 아니라 모든 감각 영역에서 전체 구조에 의해 지배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

24) 에른스트 고프리치, 「서양미술사」, 백승길, 이종승 역, 예경, 2003, p544.

25) 게슈탈트 심리학은 예술 현상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해 보이는가 하면 역으로 그 이론을 예술적 가치 평가의 문체를 설명하는 데 적용하기도 하는 등 다른 심리학과는 달리 예술적 경험에 대해 주목해왔다.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말하는 지각구조는 다수의 구성 요소들의 단순한 집합물로 환원될 수 없는 예술적 형식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이 흔히 지적되고 있다. 게슈탈트 이론은 현상학적 미학과 구조주의 미학 및 정보 미학에서 확실한 근거로서 간주된다. [네이버지식백과] 게슈탈트 이론(Gestalttheorie)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을 예술적 형식의 시각 구조에서 보면 사람들은 보는 대상을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복잡한 것보다 간단하고 전체적인 패턴을 만들어서 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본인은 시간의 흐름과 다양한 환경에 의해 변화한 식물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점과 곡선 등의 반복적인 표현 방식은 게슈탈트 이론에 부합한 무의식적 드로잉이기도 하다. 그 과정은 반복적 행위를 통해 시작과 완성으로부터 결과물을 얻게 되는 성취감을 주며, 반복적으로 통일된 시각 효과는 감상자에게도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게 한다.

또한 본인 작품의 식물이미지는 반복적 패턴을 통한 조형적 묘사로 인해 장식적인 기능이 증대되어 보이기도 한다.[작품 1, 6]

장식성은 인간에게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진다. 주로 기하학적인 직선과 방형, 원, 점 등을 기초로 혹은 식물, 동물, 풍경 등 다양한 자연물을 모티브로 영감을 받아 점과 곡선 등으로 표현한다.²⁶⁾

예를 들어,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 1852~1926)는 대부분 자연에서 영감을 받으며 식물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그만의 독특한 조형언어로 해석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주로 그는 장식적인 색상과 곡선을 활용하여 가시적인 세계를 추상화시킴으로써 기본적인 요소로서 선으로, 면으로, 덩어리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유기적이고 기하학적인 입체와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는 주로 식물을 통해 모티브를 얻어 건축, 실내장식, 가구, 벽지 등 장식예술을 창조함에 따라 예술과 대중의 거리감을 좁혀주었으며, 성실한 손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²⁷⁾

본인 역시 잎이나 나무의 나이테의 무늬, 넝쿨 줄기, 가지 등의 식물형태

26) [네이버지식백과] 장식(裝飾)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27) 박홍규, 「구스타프 클림트, 정적의 조화」, 가산, 2009, p141.

를 모티브로 하여 기본적인 조형요소인 점, 선, 면을 그려냄에 따라 장식적인 기능이 추가된다. 지금까지 식물의 이미지를 관찰하고 묘사하려는 과정은 식물형태의 배열의 법칙을 살펴 순수한 조형성에 기초하여 장식적이고 감상적인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5) 담채적(淡彩的) 표현

담채화는 13세기 중국 화가들이 투명한 먹물을 이용하여 특수한 분위기의 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르네상스 이후 유럽에도 흔히 쓰였으며, 18세기 지형도 제작 등에 이용되었다. 정확한 세부묘사를 필요로 하는 드로잉과 명암과 양감을 나타내는 채색의 두 요소를 결합하는 이 방법은 풍경화 외에도 건축 조감도와 디자인에도 많이 쓰인다. 19세기에 들어서는 자연스러운 화풍을 추구함에 밑그림 없이 곧바로 채색에 들어가는 경향이 생기기도 하였다. 담채화는 대부분 연필이나 펜화에서 명암효과를 가한 습작적인 수법을 말하지만, 투명함에서 주는 산뜻함 때문에 많은 화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그려지고 있다.²⁸⁾

본인은 기존 이미지를 차용하여 드로잉의 과정을 거쳐 큰 크기의 화면으로 옮기는 작업을 한다. 작품 제작과정에서 점과 선으로의 묘사만으로는 식물의 생명력을 시각적, 감성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역부족하다고 느꼈음에 따라 색과 함께 표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두껍게 칠하는 임파스토(impasto)²⁹⁾와 같은 유화 기법이나 물성이 강한 채색은 드로잉적 요소들을 가리게 되었다. 따라서 순수한 점, 선, 면의 조형 요소들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면서 식물이 가진 생성성, 생명성, 조형성 등의 그 고유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

28) [네이버지식백과] 담채화(淡彩畫) 두산백과, 2010.

29) 유화물감을 두껍게 칠하여 질감 효과를 내는 회화 기법. [네이버지식백과] 임파스토(impasto)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1999.

여 담채적 기법을 사용한다.[도판15]

담채적인 기법은 먹이나 잉크, 물감 등의 수채화를 열게 붓의 겹침이 드러나는 그림이란 뜻으로 물감의 농담 조절로 식물에서 생명의 맑음은 가볍고 투명한 느낌으로 드러내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을 준다.



[도판15] 본인 작품의 부분 컷.

본인의 작품에서 주된 재료는 캔버스와 종이를 바탕으로 잉크, 펜, 연필, 아크릴 물감, 파스텔 등을 사용한다. 이는 푹푹하고 맑은 식물의 꽃잎이나 이파리의 얇고 투명한 질감 등의 느낌을 담채적 기법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종이는 섬유를 물에 풀어 평평하면서 얇게 서로 엉기도록 하여 물을 빼고 말린 것으로, 햇빛, 습도, 바람 등과 같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불이나 다른 요인들로 인해 찢어지고 오염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다양한 환경에서 영향을 받으며 변질, 변색되어 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잉크나 연필, 목탄, 파스텔, 물감 등의 재료는 종이에서 쉽게 스며들고, 번지는 등 그대로의 속성이 드러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캔버스는 젯소(ghesso)를 충분히 여러 번 두텁게 바르고 말려, 그 위에 사포질을 하는 반복의 작업을 통해 종기와 비슷하게 매끈한 표면으로 만들어 캔버스 위에 먹이나 잉크, 펜 등과 같은 재료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었다.

본인의 작품에서 캔버스 표면을 칼로 조금씩 긁어내거나 종이를 한 겹, 두 겹씩 반복적으로 벗겨내어 칠하는 행위는 식물을 통해 생성과 소멸에 대한 사유를, 삶의 모습에 빚대어 생각해보기 위한 작업 과정이었다.[도판16]



[도판16] 본인 작품의 부분 컷.

3. 작품 분석

본인은 작품 표현에 있어서 식물의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을 내적 정중동의 이미지들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경험들로 얻어진 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잠재된 무의식적인 드로잉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식물이미지에서 점을 찍거나 선을 긋는 반복적 드로잉은 시간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작업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식물이 비, 바람 등의 환경에서도 견뎌내어 결실을 맺는 인내의 과정과 세월의 흔적이 반영된 표현 방법이다. 그리고 식물이미지에서 색이 가진 상징성을 통해 생명의 감성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분할된 단색면과 식물이 드러나는 공간의 색, 여백을 통하여 표현하고 싶었다. 본인에게 있어 이러한 공간의 색면 표현은 단순히 공백 혹은 조형 요소에 그치기보다는 다양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변화하는 식물의 생명에 대한 자유로운 사색을 허용하는 사유의 공간이 된다.

- a. 단색면 - [작품 6, 7,8]
- b. 식물의 형상이 드러나는 공간 - [작품 4, 5, 6, 7, 8, 9, 10, 11, 12]
- c. 색이 가진 상징적 의미 - 본인 작품에서 사용한 색

초록- 자연의 색, 심리학적 관점에서 눈에 가장 편한 색. 생명과 휴식, 위안, 차분함과 안정감, 새로운 생명과 에너지, 성장, 재생, 치료의 색 등의 의미가 있음.

갈색- 냉정, 차분, 쾌적함과 호화로움, 부정적인 면은 활력과 생명력 감소를 뜻하며 죽음과 부패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함.

흰색- 투명하고 깔끔함, 빛, 순수, 해탈, 평화, 행복 등의 의미가 있음.

검은색- 심미감, 공포, 무(無), 죽음, 무의식, 권위 등의 의미가 있음.

빨간색- 따뜻함, 활기, 생명, 재생, 정열, 태양, 불 등의 의미가 있음.

금색- 성스러움, 부귀 등의 의미가 있음.

[작품 1, 2, 3, 4, 5, 6]

식물이미지의 상징과 조형 연구. - 점, 선

본인은 작품의 주제와 형식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중에, 좋아하는 카라바조 작품의 <과일바구니>를 보면서 우연히 정물을 관심 있게 보게 되었다. 카라바조의 정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물이 가지는 사유적 의미를 알게 되었고, 카라바조 작품의 식물이미지를 차용하여 본인의 작품에 시도하게 되었다. 카라바조의 작품에서는 비록 인물을 중심으로 정물과 함께 그려져 있지만, 인물이 차지하는 부분만큼이나 정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바구니에는 싱싱한 잎이나 벌레 먹은 사과, 포도 등이 함께 그려져 있는데, 석류는 부활, 검은 포도는 죽음 등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작품 1, 2, 3, 4, 5, 6]은 카라바조의 <과일바구니>, <과일 바구니를 든 소년>, <바쿠스>의 작품에서 정물의 부분을 크로핑과 확대의 기법을 통해 재구성하였다. 카라바조는 대상의 관계와 극적인 대비, 입체감 등의 빛의 표현으로 명암법을 드러내지만 본인의 작품에서는 명암을 최소화한다. 명암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는 주로 점과 곡선을 밀도차를 주어 반복적으로 묘사한다. 이 과정은 식물이 가진 형태의 배열 법칙을 살펴, 순수한 조형성에 기초하여 비와 바람 등의 환경에서도 견뎌내어 결실을 맺는 식물과 같이 세월의 흔적과 인내의 과정이 반영된 작업 방식이기도 하다.

[작품 7, 8]

식물의 유기체적인 증식과 생명 현상의 연구. - 선

식물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 중에 식물의 생장은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인고의 세월을 거쳐 생명력을 이어나가는 가장 역동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일생에서도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으며, 우리는 식물을 통해 삶과 자연의 질서 속에 숨어 있는 많은 순환적 법칙을 발견한다.

[작품 7, 8]은 선인장에서 피어난 꽃잎의 한 부분을 반복하여 그린 것으로, 메마른 사막의 환경에서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내적 강인함과 생명력을 유기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선인장은 대부분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로 가시가 많이 나있는 것이 특징이며, 몇 개월씩 비가 내리지 않아도 황폐하고 메마른 사막에서도 꽃을 피우는 생존력이 강한 식물이다. 선인장에서 피어나는 꽃은 생존력이 강한 식물이라는 인식과 다르게 생각보다 거의 수명이 짧고 피우기도 힘들다. 하지만 결국엔 한 몸통에서 여러 개의 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 본인은 이러한 선인장 꽃의 생명력을 모티브로 하여, 식물의 형태 안에서 유기적인 곡선을 반복적으로 그려내어 끊임없이 자라나는 식물의 생명력을 생동감과 리듬감 있게 표현하였다.

[작품 9, 10]

식물이미지를 통한 감성적 연구. - 정중동(靜中動)

본인에게 있어 식물은 꽃이 지며 생성해내는 결과물인 과일과 가지, 싱그러운 잎 등은 창작의 매개체이며, 식물의 생명력은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경험과 미적 감성으로 작품에서 표현하는 데에 모티브가 된다. 식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존재이다. 식물은 건물 틈 혹은 길가의 돌 틈 사이에 피어나 조용히 홀로 살아 숨 쉬고 늘 그 자리에 있어 무심히 지나칠 때도 있다. 또한 언젠가 문득 창가에 놓여있는 화분을 보면서 소리 없이 존

재하고 있는 식물의 정적인 모습에서 평온함을 느끼기도 한다. 본인은 이러한 일상의 경험에서 보고 느꼈던 식물이미지를 내적 정중동의 이미지로 표현하려 하였다.

[작품 9, 10]은 종이를 바탕으로 식물이미지를 주로 반복적인 곡선의 드로잉으로 묘사하였으며, 재료는 주로 잉크와 아크릴 물감을 담채로 표현하여, 담담하고, 소박하게 표현하였다.

[작품 11, 12]

식물을 통한 소멸에 대한 연구. - 질감

식물이미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시각적 효과로써 깊이감을 주기 위해 사용된 재료 자체에서 혹은 작품의 제작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질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작품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또한 의도적인 질감 표현을 위한 제작과정이었다.

[작품 11, 12]는 시들어버린 해바라기의 겉 표면을 묘사한 것이다. 시들어버린 해바라기의 자잘한 씨앗이나 솜털의 겉 표면에서는 거칠고 어두운 색으로 변하였음에 따라 거친 질감으로 표현하였다. 본인은 캔버스 표면을 칼로 조금씩 긁어내거나 종이를 한 겹, 두 겹씩 반복적으로 벗겨내고 칠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식물을 통해 생성과 소멸에 대한 사유를, 삶의 모습에 빚대어 생각해보기 위한 작업 과정이었다.



[작품1] Image1, 26.5x36.0cm, mixed media, 2012



[작품2] Image2, 39.4x54.5cm, mixed media, 2012



[작품3] Image3, 24.2x33.4cm, mixed media,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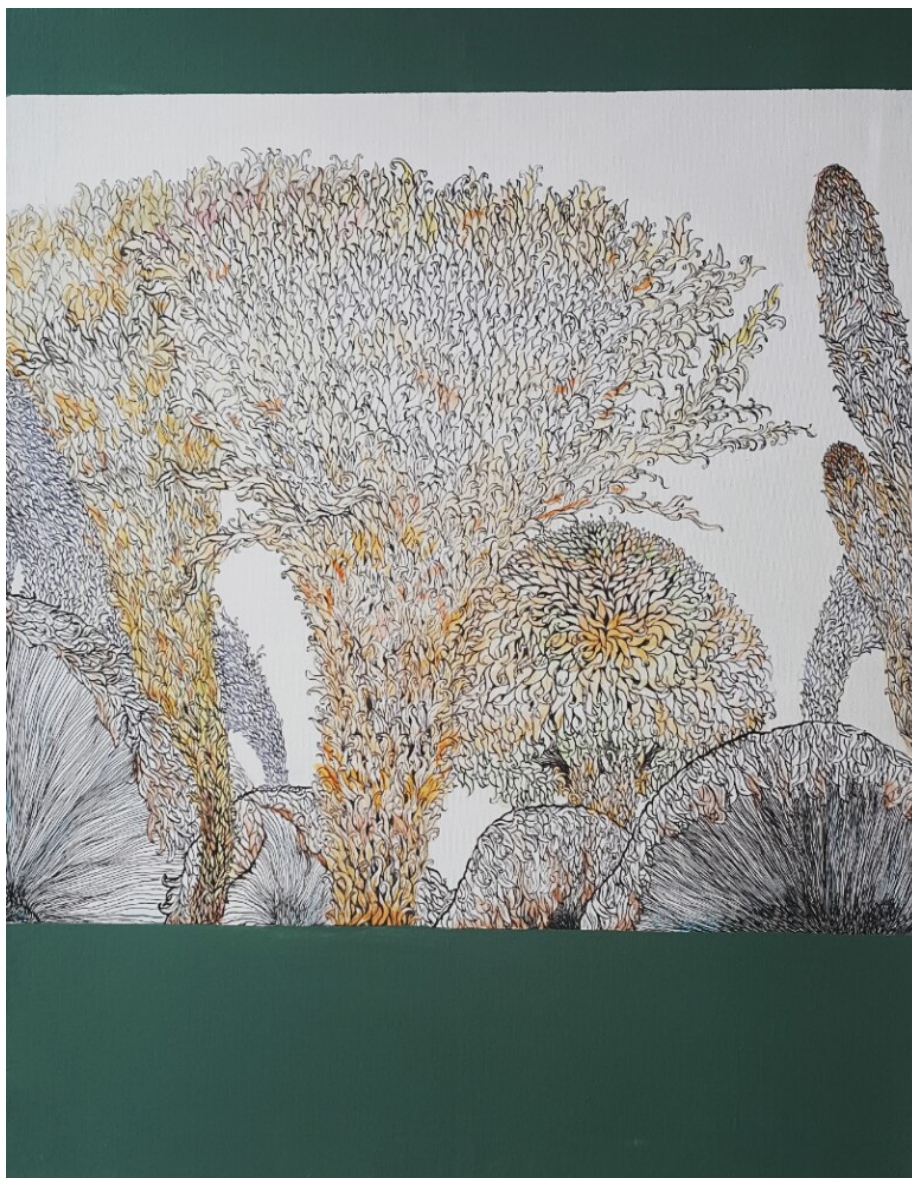
[작품4] Image4, 24.2x33.4cm, mixed media, 2012



[작품5] Image5, 19.0x13.0cm, mixed media, 2012



[작품6] Image6, 130.5x71.0cm, mixed media, 2012



[작품7] Image7, 100.0x80.3cm, mixed media, 2013



[작품8] Image8, 33.4x53.0cm, mixed media,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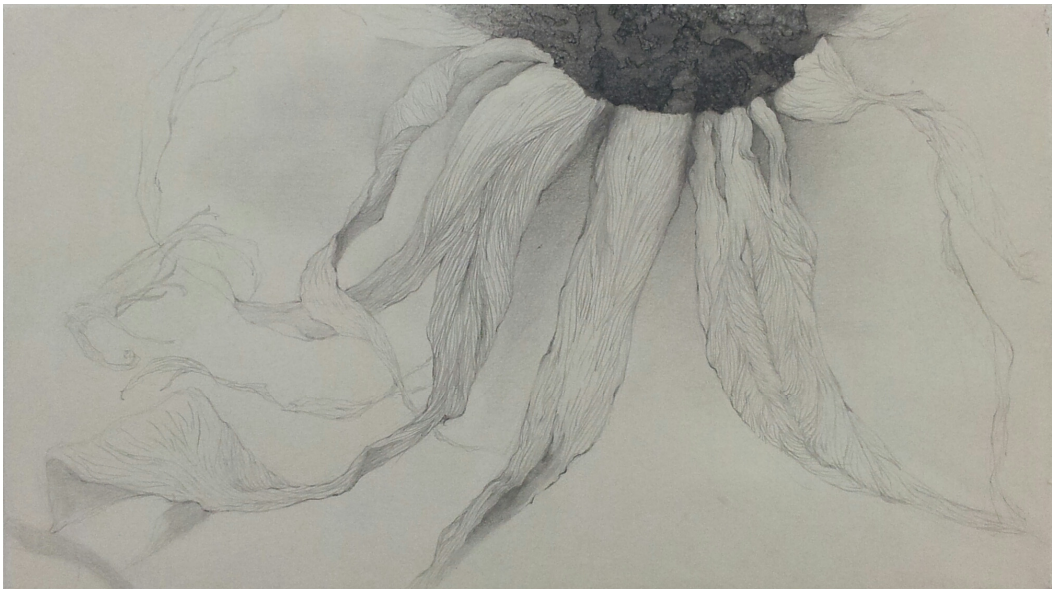
[작품9] Image9, 61.0x50.5cm, mixed media, 2013



[작품10] Image10, 53.0x45.5cm, mixed media, 2013



[작품11] Image11, 43.0x130.0cm, mixed media, 2013



[작품12] Image12, 19.0x33.4cm, mixed media, 2014

III. 결 론

식물은 인간과 함께 끊임없이 생명을 일구어왔으며, 인간에게 지역과 시대를 막론하고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미적 존재이다. 식물 속에 내재된 조형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의 성향은 보는 이에게 심미적 만족감을 부여하고, 친근한 이미지로써 감성과 사유적 의미를 공유 할 수 있는 소통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식물의 잎이나 줄기, 열매 등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고유의 무늬와 색 등의 조형미에서 갖게 되는 생명력은 적게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고, 크게는 생(生)과 사(死)라는 자연의 섭리를 사유하게 한다.

본인은 식물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사유성을 식물이미지 형태로 조형화하여, 이에 색을 입히는 등의 제작과정을 통해 잠재된 생명력을 느끼고 그 속에서 조형적 특성을 이해하여 더 발전적인 창작의 표현으로 삼고자 했다.

본인은 본 연구를 통해 단순한 회화적 소재로써 식물의 이미지를 넘어 우리 삶의 내재적 심연을 움직일 수 없을까하는 상고함을 시작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이미지를 통해 생명에 대한 사유성과 삶의 모습을 연구하였다. 동양의 기명절지화(器皿折枝圖)와 서양의 바니타스(Vanitas)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상징적 의미로 나타내는 사유적 이미지는 작업의 근간이 되고, 그 중 카라바조의 작품의 식물이미지를 차용하여 재구성하며 본인의 작품에 시도하게 되었다. 또한 식물이 가진 다양한 형태와 구조, 색감 등의 조형성을 반복적인 점, 선, 면으로 밀도 차를 주어 묘사하여 유기체적인 식물의 생명적 생동감, 리듬감 표현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며 작품 분석을 통해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적 분석과 조형적 전개 분석이 이루어진다.

본인은 작품을 통하여 인간의 일생에서도 삶의 과정이 있듯이 자연의 질서 속의 순환적 법칙에서 발견하고, 이를 통해 감정을 매개로 공유하며 해소하기 위한 사유의 장(場)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작품 연구를 통해 본인은 식물 소재에 심미적 만족감을 부여하고 미적 감성과 사유적 의미를 고찰 할 수 있는 소통의 매개으로써 제시하였으나 다소 한계점이 있었다. 작품에서 식물이미지는 크로핑과 확대 기법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카라바조의 작품과는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친숙하게 접근하고자 하였던 목적과는 멀어졌다. 또한 보는 이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사유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던 의도와는 다르게 장식성이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인은 보는 이에게도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심도 있게 다가가 식물과 인간의 교감대를 서술하고, 드로잉에 삶을 고양시키는 감성적 조형성을 더 부가시켜 식물이미지에서 상징적 사유성이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본인은 본 논문을 통해 식물이미지의 생명과 삶의 모습을 연구함에 따라 다각도로 이해의 폭을 넓일 수 있었다. 앞으로의 작품방향 설정은 본인의 일상적 삶 속에서 식물의 시간변화에 따른 형태변화를 관찰하고 식물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탐구하여 사유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참 고 도 판



[도판1] 비단욱(費丹旭)
<기명절지도>, 105x43cm,
coloring on silk, 1839



[도판2] 얀 브뤼헬(Jan Brueghel the elder)
<보석, 동전, 조개껍질과 함께 있는 화병>,
65x45cm, oil on copper, 1606



[도판5] 카라바조, (Cravaggio)
<과일바구니>,
46x64.5cm, oil on canvas, 1596



[도판6] 카라바조 (Caravaggio)
<과일 바구니를 든 젊은이>,
70x67cm, oil on canvas, 1593~1594



[도판7] 카라바조 (Caravaggio)
<바쿠스>,
98x85cm, oil on canvas, 1596-1597



[도판10]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흰 독말풀>,
121.9x101.6cm, oil on canvas, 1932



[도판11]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크리스탈 그릇이 있는 정물>,
52x42cm, magna on canvas, 1973



[도판14] 조르주 쇠라(Georges Pierre Seurat)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207x308cm, oil on canvas, 1884~ 1886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상근. 2005. 『이중성의 살인미학 카라바조』, 평단문화사.
- 김용숙. 2008. 『컬러심리 커뮤니케이션』, 일진사.
- 네이버 지식백과. 2010. 두산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 2012. 문화원형 용어사전, 문화콘텐츠진흥원.
- 네이버 지식백과. 2008. 만화애니메이션사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네이버 지식백과. 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 네이버 지식백과. 1999.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네이버 지식백과. 2014. 심리학용어사전, 한국심리학회.
- 네이버 지식백과. 2009. 칸트사전, 도서출판 b.
- 네이버 지식백과. 20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중앙연구원.
- 네이버 한자사전. 2009. 오픈마인드 자료제공.
- 박영택. 2014. 『식물성의 사유』, 마음산책.
- 박홍규. 2009. 『구스타프 클림트, 정적의 조화』, 가산.
- 뱅상 포마레드. 2011. 『루브르 - 루브르 회화의 모든 것』, 오윤성 외 2명
윝김, 시그마 북스.
- 아브라함 H. 메슬로. 2005. 『존재의 심리학』, 정태연, 노현정 윝김, 문예출
판사.
- 안달박문. 1993. 『현대 데생의 기법』, 명지출판사.
- 엘리스테어 덩컨. 1998. 『아르누보』, 고영란 윝김, 시공사
- 에른스트 고프리치. 2003. 『서양미술사』, 백승길, 이중승 윝김, 예경.
- 윤익영. 2003. 『빛과 명암이 만든 바로크의 사실주의 카라바조』, 채원.
- 이승진. 2003. 『미술특강』, 미술문화.

- 전영백. 2008. 『세간의 사과 - 현대사상가들의 세간 읽기』, 한길아트
- 최정은. 2000. 『보이지 않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정물화』, 한길아트.
- 캐럴라인 랜츠너. 2014. 『Roy Lichtenstein』, 고성도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 과버 비렌. 2003. 『색채 심리』, 김화중 옮김, 동국출판사.
- 피터 톰킨스, 크리스토퍼 버드. 1993. 『식물의 정신세계』, 황금용·황정민 옮김, 정신세계사.
- 할 포스터, 로잘린드 크라우스, 이브알랭 브야 외 1명. 2007. 『1900년 이후의 미술사』, 배수희, 신정훈 옮김, 세미콜론.
- 헌터 드로호조스카펠프. 2004. 『조지아 오키프 그리고 스티글리츠』, 이화경 옮김, 민음사.
- Bureau, W. 2011. Manet by himself, Chartwell books, Inc.
- Francis D.K Ching. 1998. 드로잉 기법 - 건축디자인 구상 프로세스, 허동국 옮김, 기문당.
- Linda Holtzschue, 2015. 색채의 이해, 박영경, 최원정 옮김, 시그마프레스.

<논문>

- 박지숙. 2010. <1980년대 회화에서 유기적 이미지의 형상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박영진. 2007. <17세기 네덜란드 꽃정물화 연구 - 사회경제사적인 관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홍혜림. 2008. <식물채집을 통한 생명의 존재성 연구 >,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BSTRACT

Study of contemplation about human life and life based on plant image

– Focusing on researcher's work –

Lee, Hye Jin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 of the analysis targeting the contents and the formative development process of my works, especially focused on my works that were on display at 'the exhibition of the plants in the contemplation' held in April 2014, selected from my works creat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from 2011 to 2014.

Human beings live along with nature in the form of co-existence in their daily lives. Among others, the plant has been undergoing a process of life and death through constantly moving and cultivating life with humans together.

Through this study, I have aimed to provide a rationale for my works by taking the plants of everyday life for the material of art work among the natural objects which provide infinite materials for

art creation. With the start of the deliberation on the question if we could move the inherent abyss of our lives, least regarding the image of plant as simple pictorial material, I have focused my study on investigating the contemplation of the plants with regard to their lives.

Humans feel a happy and relaxed mood and aesthetic vibration when they are together with plants, and further can make deliberation after healing and restoration of the emotion. In addition, the plant has different colors, structures, forms and etc. depending on its species so it makes the subject very proper for us to obtain the inexhaustible artistic motif to be expressed in a variety of ways. The fruits, boughs, leaves and etc., the resulting things that are generated from the falling flowers, are making a mediator of creation for me. In addition, the subtle color and the changed shape leaf which are perceived in the daily life, cause the aesthetic sensibility to me and provide with the motif for the expression in my works. The mortality of the plants, by which the flourished flowers whither and the lush green grass dry shows the natural providence, depicting the shape of human life to be perceived by us and, at the same time, lead us to the contemplation on the meaning of the life.

In this paper, I aim to present the appearance of life and the aspect of contemplation of the life through examining the plant which affects the psychological parts of the human beings in addition to the upcoming visual beauty.

In the process of my works evolution, I have sought after the possibility of a reflective image latent in my works through exploring the symbolic meanings of the plants represented in the 'paintings of tableware with boughs' (器皿折枝畫) of the Orient as well as Vanitas still life paintings in the West, which constitute the basis of my work.

Further, I have materialized the expression of the image of the vegetation through the projection of our lives presenting in such a still life-image format as mentioned above. In other words, I have attempted to express the aspect of contemplation about the life and the appearance of our life in such a purifying way that the image of the vegetation which is easily intact in the vicinity with human beings as a part of the nature, be given with the rational.

With a view to the goal of the above-mentioned, this paper was meant to approach the works with a contemporary sensibility by borrowing a portion of the existing still life art works of Caravaggio and reconstructing it again in the expanding manner, so the works were produced in the feature of drawings by means of applying the repetition of points, lines and planes in expressing the structure, form and color of plants. The figurative depiction by way of the repetitive pattern was intended to extend the decorative features and exposed to the feeling of a vegetation image of unlimited proliferation as organisms so that it could present the lively dynamism as well as the effect of rhythm of the plants. Also I have sought to express the feelings of the contemplation by the plants,

by looking into the process, by which the plants appear in a form of drawings through the expression which accompanies the fine and tint spreading and pervading.

Finally, I shall seek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my works and the solutions as well through this study and take avail of an opportunity to find the direction of my future work to be developed in days to come.